

전환기의 학회와 학문공동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문희범

2012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회는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바라건대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변환을 통해 발전적 성숙기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회원의 세대 변화다. 1972년 창회 당시의 회원은 물론, 학회의 성장기를 이끄셨던 원로 선생님들이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40대 또는 그 이하의 세대가 전체 회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회원들이 주류를 형성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는 학문공동체로서의 우리 학회의 역할에 대해 무심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회원도 상당수일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는 회원의 전공분야별로 학회 참여도가 크게 바뀌었다. 창립 당시에는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알레르기학에 관심있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병리학과, 미생물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모여 학술 활동을 하였지만, 이후 분야별로 여러 세부 학회가 생기게 됨에 따라 알레르기학을 다양하고 동시에 통합적인 시각에서 논의하던 학회의 기능이 줄어 들고 어느덧 내과와 소아과 전문의들 중심으로 학회가 운영되게 되었다. 셋째, 오래 전에 고착된 현상이지만 우리 학회는 전적으로 대학의 임상 전공 교수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외국과 달리 우리 개원의 회원들은 교육강좌 이외의 학회 학술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회의 영문 명칭과 다르게 임상면역학조차 학술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난 2년의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회칙의 회원 자격요건을 개방하여 기초 과학자와 연구원, 간호사, 기사의 학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평면적인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피부과, 이비인후과 회원을 포함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팀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연구자 집단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런 노력만으로 학회의 대전환기를 충분히 대비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유수의 대학에서 발표되는 연구 논문에서 보듯이 우리 학계의 학술적 성취는 괄목할 만하다. 한편 학문공동체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세부 임상분야에 있어서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초과학 연구자와의 교류와 협동에 필요한 학회 차원의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알레르기 통합 전문의 제도를 위한 준비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알레르기학을 전공할 미래 인재의 확보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학제와 분과의 장벽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개방된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10년 후의 우리 학회는 품격 높은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회원들 각자가 학자적 긍지와 품위를 지키고 공동체의 역사와 규범, 화합과 질서를 중시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지난 40년을 뒤돌아 보면서, 학회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